| 샬롬..안녕하세요. | bitfree@gmail.com |
| --- | --- |

목차

[Say You, Say Me, Say it Together Naturally.. 201512 6](#_Toc28965448)

[기도제목 20160124 10](#_Toc28965449)

[졸업식 20160131 12](#_Toc28965450)

[졸업 2 201602.graduation 14](#_Toc28965451)

[명절 20160215 15](#_Toc28965452)

[조력자 20160222 17](#_Toc28965453)

[자비20160229 19](#_Toc28965454)

[특별한 하루 20160229.special 22](#_Toc28965455)

[성경20160308 25](#_Toc28965456)

[교회 20160315 27](#_Toc28965457)

[TALK PLAY LOVE 20160322 32](#_Toc28965458)

[부활 20160329 35](#_Toc28965459)

[기도 20160405 38](#_Toc28965460)

[함께 밥 먹기 20160413 41](#_Toc28965461)

[사랑20160420 45](#_Toc28965462)

[성장 20160426 48](#_Toc28965463)

[꾸짖음과 야단 20160502 51](#_Toc28965464)

[시험20160511 53](#_Toc28965465)

[주일20160527 57](#_Toc28965466)

[보물 20160603 60](#_Toc28965467)

[정신 20160610 62](#_Toc28965468)

[성경퀴즈 20160614 65](#_Toc28965469)

[가족 20160623 67](#_Toc28965470)

[가족2 20160629 70](#_Toc28965471)

[기도 20160704 73](#_Toc28965472)

[공동체20160711 76](#_Toc28965473)

[성적20160719 79](#_Toc28965474)

[수련회20160730 82](#_Toc28965475)

[간증20160803 84](#_Toc28965476)

[이스라엘20160809 87](#_Toc28965477)

[금메달20160816 90](#_Toc28965478)

[천국과 지옥20160825 93](#_Toc28965479)

[뭐였더라? 20160902 99](#_Toc28965480)

[미래20160909 104](#_Toc28965481)

[명절20160912 107](#_Toc28965482)

[빨간불 20160922 110](#_Toc28965483)

[빨간불 2 20160930 114](#_Toc28965484)

[빨간불3 20161006 117](#_Toc28965485)

[불의20161012 120](#_Toc28965486)

[미래 한국20161022 123](#_Toc28965487)

[공의의 하나님20161102 125](#_Toc28965488)

[핸드폰 20161111 126](#_Toc28965489)

[생명 20161118 129](#_Toc28965490)

[장용익 장로님 20161123 131](#_Toc28965491)

[스트레스20161201 134](#_Toc28965492)

[복덩이들20161205 137](#_Toc28965493)

[십자가20161213 140](#_Toc28965494)

[분가와 접붙임20161219 143](#_Toc28965495)

[일년 결산20161228 146](#_Toc28965496)

[기도리스트 20170102 148](#_Toc28965497)

[기도제목2 20170110 149](#_Toc28965498)

[특별새벽기도 20170117 153](#_Toc28965499)

[천방지축20170124 157](#_Toc28965500)

[휴식과 안식20170209 160](#_Toc28965501)

[효(孝) 20170216 163](#_Toc28965502)

[중학교 2학년 20170221 166](#_Toc28965503)

[은혜20170302 169](#_Toc28965504)

[역사의 순간20170310 172](#_Toc28965505)

# Say You, Say Me, Say it Together Naturally.. 201512

지난 5년간 성가대에서 이런 저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제 20년만에 중/고등부 예배시간에 함께 했습니다.달라진 요즘 아이들의 모습에 에너지가 쭉쭉 빨리는 느낌이죠. 다리가 후들후들.. 아이들 표정은 무표정.. 어딜 가나 요즘 청소년들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1Round 서자마자 상대방의 기에 팍 눌린 파이터의 모습처럼 기운이 쭉 빠진 모습이지만 어쩌면 무표정한 학생들의 표정에서 저를 본 듯한 모습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물론 시험 한 번 치고 답을 찾으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아이들의 대화 중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은 주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세대를 맡기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1부 예배 마치고 2부시간에 집사님/장로님/권사님 찬양을 못 들어서 허전하고 예배 안 드린 느낌이었습니다.

중/고등부와 교육 부서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 속 여리고 성 20160111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여호수와의 여리고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성인이 된 저에게는 아직도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이해되기 힘들고 납득되지 않는 면이 많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단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가 알고있는 성들부터 이야기했습니다. Clash of clans 라는 공성전을 다루기 있는 게임(어머니들은 낯설지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중국 천안문에 있는 자금성, 대륙의 만리장성, .. 일본의 오사카성.. 아무튼 처음 들어본 성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춘기 남자아이들답게 여성/남성/중성.. ^\_^;

아이들에게 성경의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견고한 마음의 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들 하나의 성은 가지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마음의 성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물었더니 여전히 장난기 많은 초딩을 못 벗어난 아이들입니다.

“열쇠로 열면 된다.”

“디지털 도어락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문을 열었더니 또 문이 나온다.. “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선뜻 대답을 못하더군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처음 중/고등부라는 또 다른 아이들의 세계를 접했습니다.

유/초등부에서 잘 키워온 믿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아니면 교회 마저도 겉돌고 마는 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련회 신청을 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에 자녀들이 꼭 참석해서 마음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마음에 여리고 성이 자리잡고 있는 최광일 드림.

# 기도제목 20160124

안녕하세요? 사명의 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중1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에서인지 새로 진학하는 학교에 대한 기도제목이 공통으로 나오더군요. 물론 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가족까지 확장되거나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 주세요.

두현이의 기도는 팀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준호는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감, 좋은 환경을 주시라는 기도제목 은준이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윤이는 보드게임대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정은주 집사님 유성이도 가정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제목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 2월말 까지는 고린도전/후서 성경 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2월 한달 동안 고린도전/후서를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Sound Body, Sound Mind)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화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졸업식 20160131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아이들의 졸업식이 모두 다 2월5일에 있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은 아닌 졸업식.. 다들 유치원 때 했던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만6년만에 하는 졸업식을 다들 유쾌하게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은 마냥 신나기만 하나 봅니다. 그놈의 짜장면은 언제 졸업 할련지..

아이들과 여전히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에 못 했던 것은 설연휴에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4장까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13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주세요.

설연휴 기간 주일에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연합예배입니다.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오가는 길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친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향기를 조금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졸업 후 중학교 가기 전에 1학년들만 따로 모여서 미니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마지막 추억을 위해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가정에 성령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졸업 2 201602.graduation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지혜가 늘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지난 6년동안 아이들의 양육과 가르침에 부모님들의 수고와 애씀에 감사드립니다. 더 큰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맡겨주신 자녀를 위한 기도에 힘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아이들의 앞날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설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명절 20160215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 주일은 아이들을 2주만에 봐서인지 좀 낯설기도 하고 이제 정말 한 살 더 먹었다고 그런지 제법 의젓해지기도 한 모습에 모두 제 자식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황금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Give and Take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위 말씀은 사실 평등과 공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에 관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잘 이해를 하더군요.

그리고 발렌타인 데이의 의미에 대해서도 잠시 나눴습니다. 은준이는 평소에도 신문을 본다고 해서 사실 2월 14일이 연인들의 날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더군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은준이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현이와 도윤이 그리고 유성이의 소식 좀 전해주세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이른 날에 있네요. 3월 마지막 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최광일 드림 -

# 조력자 2016022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조력자라는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고전 1:26 ~31) (조력자라는 말도 이해 못하는 데 뭐.. 이건 약과죠..한자를 풀어서 도울 "조"..힘 "력" 했더니 그제서야 이해하는데.. helper 라고 설명하니 더 쉽게 이해하는 건 너무 세대차이 나는 건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능력이 많은 자보다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바로 어머니.. 엄마입니다.

다들 동의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보다 아빠를 더 무서워(?)하는 가정이더군요. 어머님들 더 분발 하셔야겠습니다. ( ^\_^; )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느꼈는지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지 다들 천차만별인 아이들이지만 놀라지 마십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14년동안 한번도 느끼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망치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의 답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더 놀랍죠. 부족하게도 넘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주시면 교만하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자부할까 봐 부족하면 힘들어질까 봐...

열 네 살 인생들도 몸으로 체험한 것을 어머님들도 동의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력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로는 + 때로는 - 도움을 주시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졸업을 하고 나더니 많이 의젓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반 아이들의 자체 반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학원 한번만 빼주세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자비20160229

이번 주 성경공부는 자비에 대해서 입니다. 마5:7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자비는 사실 우리에게 석가모니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손가락을 동글게 말고 가부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입시와 경쟁이라는 틀에서 자비를 생각할 틈이나 있을까요? 먼저 공부해야 하고 먼저 출발해야 하고 주위를 돌아볼 틈이 있을까요? 남보다 우월해야 하며.. 먼저 결승선에 도달해야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자비란 오히려 사치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헤퍼 보이거나 약해 보이면 낙오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좀 더 빠릿빠릿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저는 자비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 5: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임이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업신여기는 자는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 사전적 의미는 "자비가 없다(無)"이지만 자비의 반대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아이들과 자신들이 자비를 베풀거나 반대로 긍휼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다행이 이번에는 14년동안 한번도 자비를 베풀거나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은 친구의 가방을 들어준 일, 운동 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친구를 도와준 일, 스스로 해야 할 일( 즉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한 일.. (자존감이 센 아이입니다.)

저는 퇴근길에 으슥한 곳에 쓰러져 있는 술 취한 행인을 도와준 경험이 있죠. 11월 중순이라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세상에는 많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베푸는 자비와 우리의 자비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강도 당한 자를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이 있는 자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욕심과 교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께 숙제입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성경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다 보면 논술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 ^)

- 최광일 드림 -

# 특별한 하루 20160229.special

4년만에 하루가 더 많았던 어제..샌드위치데이 바삐 움직인 하루였기에 더욱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쓴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제 자식 챙기느라..오후에는 치과치료를 위해, 찾아야 할 책이 있어 도서관에...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약속시간..마취는 덜 풀리고 말은 꼬이고... )

교제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모습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차분한 모습을, 제법 어른스러워 보일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아이인 모습, 방방 뛰는 모습( 좋게 표현해서 방방 뛴다고 표현이지만 사실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링을 하고 나서 옆에 있는 샌드백 펀치 게임을 하자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풀고 싶답니다. 과격한 모습을 볼까 봐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스트레스 풀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지금 아이들과 비교도 안되겠지만..3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 말고 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 않는 아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경험치를 주고 싶었으나 별로 떠오르지 않는 콘텐츠.. 어머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발굴해주세요.

가족과의 모임에서 스포츠(볼링 등..)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제 교복을 입은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학생증에 들어갈 반명함 사진도 찍고 학습교재 준비도 하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청소년기에 많은 아이들이 고민할 틈도 없이 무너집니다. 공든 탑이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교제를 가지면서도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왜 그리 찾으셨는지 알았습니다.내 눈 앞의 아이들보다 어쩌면 이 모임을 갈구 할 수도 있는, 자리에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조만간 또 모임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갑이 털리더라도..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선생님이란 호칭이 아직까지도 어색한... 집에 와서 급 피곤해진 체력의 중요성을 또 깨닫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응답하라 1988의 청춘이 떠올라서 ... 어머님들의 청춘도 화이팅!!

# 성경20160308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벌써 아이들과 만난지 두달이 지나고 입학도 했고 진짜 청소년들이 되었네요. 지난 주일은 아이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성경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의 권위를 나태 내고 있고 그 증거로 창조와 구속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그 중 핵심은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율법에 메이거나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학교/학원/친구 하다못해 부모님 마저 우선순위와 영향력에서 밀려나는데 하물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넘어서 생명력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 있느냐고..

모두다 Yes!! 다행입니다.

성경을 읽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토록 많은 성경 해설서와 많은 기독교 책들이 있지만 결국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이들이 빈손으로 나타납니다.

어머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갈 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OO아!! 성경 들고 가라~~~~ "

# 교회 20160315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주에는 마태복음 7:21 ~ 27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썩어서, 교회의 비리, 사회의 지탄받는 지도자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가는 성도들은 괜찮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나도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우리가 낮다는 우월감? 또는 자만.. 비교의식 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진개진!! 그놈이 그놈입니다.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지옥 가기 싫어서 무늬만 흉내 내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설마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그 분을 인정하고 살아 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장애물이 부모가 될 수 있고 학업이 될 수 있고 또는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일주일간의 피곤, 분주함, 자기합리화, 목적의식이 예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아빠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사람?

다들 집이 가까워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이상을 와야 할 때라면 어떻게 하겠니?

다들 답이 머뭇머뭇하네요. 이때까지는 엄마/아빠 차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또 질문했죠?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 주일을 지키러 교회 예배 드릴래?

애들이 또 흔들리네요.

이게 바로 현실이죠.

예배는 드리겠지만 오후에는 그러지 못 할 것 같다고..

반대로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결바탕/기초가 되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모래 위의 집...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꼭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시련이 와야 비교가 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모래 위의 집은 지반이 점점 가라앉아 집이 기울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조금 벌어졌던 벽의 금이 점점점.. 커집니다. 나중에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합니다. Broken Window 라고 검색해보세요.

글이 길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면 그 지역은 할렘가, 범죄의 소굴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당시는 사춘기가 늦게 시작할 때라..요즘처럼 일찍 찾아 오진 않죠.

아무튼 미션 스쿨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름..애썼습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기. 대신 주중에 열심히 하기. 예배 꼭 드리기, 대학에 가서는 선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군대 졸병 때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고참 때는 신병들 데리고 또 열심히 종교행사 참여하기..

그런데..전역 후 복학해선 날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때.. 대학3학년 4학년 선배 때.. 대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편해진 생활일 때.. 교회 나가지 않기..

저에게 모래 위의 집은 주님 없는 편안함,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잘 다니던 직장에서 힘겨운 시절이, 정신적/육제적으로 고통이 올 때 바위 위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힘들고 예수님과 멀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저는 편안함이 예수님을 멀게 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고난을 일부러 찾진 않지만 편안함을 애써 누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중고등부 교사를 자청한 것도 쉽고 편한 교회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바위를 뚫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수고와 에너지가 듭니다. 모래를 파고 집 짓기는 쉽습니다. 평소의 생활이 곧 주일의 생활입니다. 바위에 기초를 둔 평소의 생활이 되길 기도합니다.

4월 야유회 행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높은 참여율도..

최광일 드림.

# TALK PLAY LOVE 2016032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히 4:14~16말씀을 가지고 공과공부를 나눴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한 사람을 찾아라-

TALK, PLAY, LOVE 예전 삼성전자 애니콜 브랜드의 마케팅 용어였죠. 저는 그 뒤에 한 마디 말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WITH GOD. 지오디랑 놀아라는 뜻은 아니죠?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받으라..그리고 PRAY 하라.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힘들 때 내가 찾는 것 또는 사람 또는 절대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 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위험한 나날이었습니다. 목숨이 그냥 목숨이 아닌 거였죠. 위기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고난이 강해질 때.. 견디다 견디다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실까요?

저는 YES AND NO 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사시 지도 않았고 학원/경쟁/입시/취업이 어려운 시기도 사시지 않았기에 우리의 고통을 잘 모를 꺼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분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더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며 우리가 TALK,PLAY,LOVE 그리고 PRAY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부모님의 수고하심, 그리고 가족의 건강에 대해, 또한 의외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참 이번주간이 고난주간이네요. 새벽에 요동치는 시간이죠..잠과의 싸움에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들에게도 카톡을 날립니다.

중고등부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레 우리 아빠는 바쁘고 피곤하셔서 못 오실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 해주세요~~!!

아빠와 신나는 자전거 타기 행사 꼭 기억해 주세요.

최광일 드림.

# 부활 2016032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주는 모두가 다 아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이에게는 그냥 52주중 하루의 일요일이죠.

아이들과 공과공부를 고전 15:1~16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나의 부활도 있다는 게 맞는 말이고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더욱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명제가 사실이면 당연히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도 사실이고 그 명제의 대우인 내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거짓, 명제.. 갑자기 삼 십년 전 수학을 생각 하려니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즉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의 대우 역시 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면 너희는 부활할 수 있을까? 또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당장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며칠 뒤에 죽는다면 너희들은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전히 ???????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리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성령과의 연합은 mixed life 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기에 섞이고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live together..

늘 성령과 함께 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함께 자전거타기"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빠의 자전거 타기 행사가 바뀐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아버님들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부활절 달걀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참 귀엽습니다.

-최광일 드림-

# 기도 20160405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최광일입니다.

이번주는 기도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마 14:32 ~ 42 우리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나눠 봤습니다. 학생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대부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더군요.

제 어렸을 때에는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앞두고 하는 기복(?)신앙이었는데 말입니다. 지난 주에는 남한강 자전거도로를 학생들과 다녀왔는데 다행히 이번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좌우의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쭉쭉 앞으로 나아가듯이 기도와 말씀은 자전거의 오른쪽 왼쪽 페달과 같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오래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네요. 허~~얼... 애나 어른이나 똑같네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러 간 순간에도 잠이 들고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루에도 몇 차례 씩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잘 들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근력이 부족했던거죠. 기도의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이 기억하는 거죠.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은 20년만에 자전거를 탔는데 몸이 기억하고 자전거 타는 법을 잊어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기억하는 체득을 했던거죠. 한 때 유명했던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에서도 마지막에 서태웅이라는 선수가 눈을 다쳐서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루에 백만 번을 던졌던 슛이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자유투를 성공시킵니다.

그만큼 반복과 습관의 힘은 고난이 닥쳤을 때도 자동으로 몸이 기억을 하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중고등부 자전거 타기 행사 중 오르막 고개를 넘어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넘어가기 힘든 고개입니다. 목사님이 내기를 했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고개를 올라가는 사람에게 만원!!"

왠지 자신만만한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 학생 중 2명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통학을 자전거로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근력이 길러진 아이들에게 고개를 넘어가는 것은 일도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20세가 되는 성인까지 약 25만개의 광고를 보면서 자랍니다. "쫄깃쫄깃 오동통통..."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시나요? "농심 너구리"가 자동으로 떠오르죠? 나도 모르게 외워진 광고 카피.. 기도의 습관은 바로 체득입니다.

기도의 힘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학생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화목한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함께 밥 먹기 20160413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아이들과 분반공부가 없고 중고등부 전체 회식을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을 사랑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몇년 째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으로 해마다 기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면 꼭 감사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분반 공부가 없어서 이번 주는 편지를 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아쉬어서 또 컴퓨터를 켜게 되네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말입니다" -

태양의 후예 아니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류역사를 후대에 남기는 타임캡슐에도 몇 백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실려있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중에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것도 있어서 소개해 드릴께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목사님의 자식사랑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 대해 말씀하던 중

목사님의 바탕화면에 있는 것은?

(참고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아이들이 어려서.. 바탕화면에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야동이요"

헐.~~~

그것을 되받아 치는 목사님의 대답은?

“야 그것은 성경 폴더에 있어..”

이건 그냥 에피소드이구요. 아이들이 야동을 접하는 시절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16절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문구가 무엇인가요?

저는 말씀을 듣는 중에 "주셨다"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 본적이 있던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독생자...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을까? 더더욱 힘듭니다.

어느 다큐멘터리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소를 키우는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셋 달린 송아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키우고 싶지 않고 사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송아지를 지극 정성으로 키웁니다. 다큐 제작 PD가 묻습니다.

"아니.. 그 송아지를 처분하지 않고 굳이 사료값 들여가면서 왜 키우세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 불쌍하잖아요."

설교 말씀 끝부분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리 셋 달린 송아지처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들을 위해서..그리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오늘 학생들을 데리고 안산 화랑유원지에 다녀오려고 생각했으나 그건 부모님의 판단에 맡기려고 합니다. 혹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안산 화랑유원지의 세월호 추모 공간에 다녀오시면 아이들에게 산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마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늘 그곳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기도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사랑20160420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가서 2:6 ~7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인과의 사랑에 빗대어 전해주는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연애 편지죠. 요즘 말하는 애틋한 송송커플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 비슷한 질문을 연초에도 했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모른다",

“글쎄요",

"없다"

언젠가 알겠죠?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이성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기에,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짜릿하고 자극적인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요즘 아이들은 워낙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는 하나님의 나와의 사이에 있는 방해물을 없애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다못해.. 그걸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합니다.

신랑의 품에 안겨 있는 신부의 마음처럼

신랑과의 달콤한 시간이 방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시험기간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험은 좀 다른 것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한마디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말로 대신합니다.

교장 선생님 : “아드님은 보통 사람과 달라요. 아이큐가 75에요.”

엄마 : “우린 모두가 달라요, 선생님.”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성장 20160426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 아이들과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8:38~39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시는데 왜 나는 아프고 힘이 드는가"

이 고민은 어른들에게 참 힘든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제 마음은 어찌란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고 지극 정성으로 돌봐도 아이들은 때론 아프기도 하고 때론 원치 않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프지도 않고 힘이 들지도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신앙인으로서의 고민과 삶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방목과 같습니다. 초원을 누비며 풀을 뜯고 노는 양떼처럼 지유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누리지만 때로는 늑대의 침공이 있을 수도 때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결국 안전한 우리로 돌아갈 수 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방목을 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때론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라도 다시 목장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OOO 구원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까먹었네요.

물론 욥기에 나오는 욥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련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라면 성장통을 겪더라도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가 있겠쬬?

이번 주와 다음 주 아이들의 시험기간입니다. 벌써 주일에 나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바로서는 학생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만 맡기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하는 신앙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안내 드린 것처럼 5월 8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요.

늘 가정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꾸짖음과 야단 2016050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사과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분반공부시간에 말씀은 전하지 않고 아이들을 야단만 쳤네요. 그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버릇이 없다느니.. 기초적 예절이 없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비록 주일학교이지만 이곳도 엄연히 학교이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인데? ( 김하늘도 아닌데.. )

저 역시 세 아이 아빠로서 훈육은 커녕 양육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볼 때 마다 생각나는 것은 '아.. 뭐가 잘못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좋게 시작했죠. 중간고사 기간이고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감정이 흐트러지고 조절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마 어제가 바로 그날 이었나 봅니다.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됐는지 저도 수습하려고 해도 이것 저것 화제도 바꿔보고 달래 보았는데 아이들은 이미 삐친 모양입니다. 풀이 확 죽어서..

그래서 다음 주.. 시험도 곧 끝나고 날씨도 좋고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볼링 한판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도 함께 하시면 좋구요. 아니면 아이들만이라도 보내 주세요.

시간은 5월 8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 행사는 5월 2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는 사명의교회 예바라기의 전통(?)의 행사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세요.

가정의 달.. 가족간 서로 사랑을 전달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힙니다.

- 최광일 드림-

# 시험20160511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서인지 결과에 상관없이 얼굴에 한결 부담들이 없어 보입니다. "망했어요"부터 시작해서 "저도 망했어요"..전교 일등도 시험은 항상 "망했어요~~"하고 하죠..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첫번 째로 레위라 불렸던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눅 5:27~32)

레위지파는 구약의 모세 시대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처단을 내린 구별된 지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내려주고 구별된 지파의 역할을 했던 12지파 중 한 지파였습니다.

레위(마태)의 부모들도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레위로 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민족의 반역자,더러운 취급 받고 싫어하는 세리로 자랐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세리, 로마로부터 세금징수권을 부여받은 자. 이런 레위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세리 레위를 안아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No"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Yes"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뻤던 적이 생각나시나요? 레위에게는 아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잔치를 베풀고 주변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듯한기분..머리도 맑아지고 그때가 25년전이지만 아직도 그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기분.. 하루 정도 유지되더군요.

이런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바탕이 된 삶"이라고 합니다.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매월 첫 주 토요일 아침 9시는 주일학교 학부모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3월과 4월은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5월이 되어서야 처음 참석해 보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원로목사님의 영가훈도 생각나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어제 아들에게 부끄러운 1패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눈치 채지 못하게 10일동안 부모님을 칭찬해 주는 미션 숙제를 학교에서 받고 그 때 부모님의 반응을 적어오라는 숙제였는데 제 반응이 모두 "보통" 이거나 "잘 모르겠음"이었습니다. 미션을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든지..

저도 아들 몰래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들 몰래 계속 칭찬해 주기…

서로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주일20160527

"오 마이 갓!! 목사님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걱정마세요! 오마이갓 앱이 있잖아요!!,"

"빠진 예배,설교, 교회행사 알림, 이제부터 오마이갓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광고 들어보셨나요?

실제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광고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인자는 주일의 주인이다. 이번 주 말씀은 정말 이제부터 그 의미가 무색해진 것일까요? 주일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없이 그냥 메마르고 무의미한 주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배는 나중에 설교는 다시 보기로.. 그냥 지나간 방송 보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이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쩍 말이 없어지고 가끔 사용하는 몇 마디 안되는 말 중에도 거친 말과 비속어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일수록 그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주변환경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생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저 그런 크리스챤으로 자라면 오늘날 뿐 아니라 미래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난 주는 중고등부에서 가족 초청의 날로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반에서는 한 분도 오시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 모습에 떠올랐습니다.

그냥 공지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은 단지 행위일 뿐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은 제게 교훈을 주십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였느냐?"

중고등부 교사들은 4월부터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정말 많이 분주함에 이제서야 부모님들께 편지를 드리네요. 금요일인데 그냥 이번 주는 생략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내어서 잠시나마 글을 씁니다.

# 보물 20160603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한주가 다 지나가는 금요일이 되어서야 소식을 전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좋지않은 사건사고가 이번 주 내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6:19~23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제빵사에게는 빵이 보물 1호이고 그 빵을 만드는 좋은 밀밭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보물일까요?

물질적인 풍요함, 돈, 명예, 지식, 똑똑한 머리..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인생이라면 그걸로 끝납니다. 경주 최씨 부자의 삶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최 부자의 가훈인 육훈이 이 시대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눈이 달라집니다.예수님은 마음의 보물을 지키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성경말씀을 읽었던 당시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날짜가 지나다 보니 많이 희석 되어서 중언부언이 많네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길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는 주일학교 학부모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9시 교육관 중고등부실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정신 20160610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무려 반나절이나 빠르게 이번 주 소식을 전하네요. 이번 주는 우리반 아이들이 모두 유아세례를 받은 명문(??!!)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공과는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천의 귀신이 들린 자가 들판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분명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또한 그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DNA에 녹아있는 할머니 귀신이라든지, 처녀귀신, 총각귀신, 돌아가신 큰아버지 귀신, 이런 귀신은 아니죠. 한번 죽은 자는 심판을 받고 천국 or 지옥이죠.

귀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사단의 무리를 추종하는 무리와 그 졸개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지가 떨리고 그 앞에서 꼼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에 멘탈이 강하지 못하고 요즘 말로 흔히 유리 멘탈, 두부 멘탈(깨지기 싶다고 해서)일 경우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영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육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멘탈 갑이 되어야 하죠.

가끔 저도 그 믿음이 조그만 것 하나에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상황일 경우라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 중한것도 모르고..

영화 "곡성"에 나오는 대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세상은 뭐가 중한 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호시탐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쓰러지고 좌절하도록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더 쉽게 이러한 것들에 노출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전 특히 믿음의 가정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순차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특권과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성경퀴즈 20160614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 최광일 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학생들과 성경퀴즈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읽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한 친구도 있고 별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게는 모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반은 그냥 쿨하게 부담 갖지 말고 빵점 맞자고 했는데 그래도 중간은 갔네요. 중1학년 학생들이 가장 잘하네요. 중2,중3,고1 학년이 올라갈수록 별 관심이 없고..이러다가 다시 철들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고2,고3 들은 진지하네요.

예전에 설교 중에 들었는데 성경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남는다고 하죠. 성경고사 100점 맞고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이 나중에는 신앙이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는 말에 주일 학교 교사로써 퀴즈 몇개 맞추는 것이 중요치 않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몸으로 겪고 얻는 체득이 오랜 습관으로 남아 신앙의 바탕이 된다면 어떠한 시련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UX,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몸에 익은 사용 패턴과 그것을 바탕으로 쌓여진 경험치, 보다 쉽고, 더욱 더 직관적인 사용법인 것처럼 신앙도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서 과외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이들과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 가족 20160623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고전 12:12 ~25) 말씀으로 공과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가장 낯 간지러운 말 중에 하나가 "형제님,자매님" 이라는 호칭이었죠.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인 우리는 영적 형제요 자매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Soul Mate 이죠.

가족은 뿌리가 같은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지거나 찍혀 잘라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그리 다가오지 못하는 말처럼 보입니다.주님의 몸 된 교회에 붙어있는 자는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요즘 교회 안의 모습은 붙어있되 쉽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포스트 잇과 같습니다.

포스트 잇 참 편한 물건 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어떤 것에 붙어있지 못합니다. 편할 데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와 맞지 않으면 잠시 떨어져있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춘기인 아이들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형제는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형제가 별로 없는 가족이라면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영적 친구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남자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여학생들과 비교해서 그런 모습이 덜 보이지만.. 서로의 신앙을 챙겨주는 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벌써 1학기가 끝나갑니다. 아이들도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많이 바빠 보이지만 무엇이 먼저 인가에 대한 기준은 부모님들께서 잘 잡아 주셔야 합니다. 교회는 1주일에 한 번이지만 가정은 날마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늘 건강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가족2 2016062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말씀입니다.

(고전 12:12 ~ 25)

교회내에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경중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죠. 가족이지만 우리는 너무 모르는 사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가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주는 관계입니다.

르브본 제임스라는 농구선수는 그 어느 공격수 수비수보다 뛰어난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그의 팀이 NBA에서 우승을 했을 때는 자기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까지 도움을 줄 때 팀이 우승을 했다는 농구 매니아 목사님의 설교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여자 아이들은..이게 뭥미?

중보기도를 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겠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어떤 패쓰가 필요한 지… 르브론 제임스처럼..

유진 피터슨은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해야 하는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밤을 보내보기,

함께 샤워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을 해 보면 그 사람과 가까워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1학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여름수련회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함께 밤을 보내고, 샤워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육적인 지체는 아니지만 당신은 나의 영적 지체입니다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월 25일~27일이고 장소는 동해안 양양의 동상교회라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지쳐 있네요. 가족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옆에 붙어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최광일 드림-

# 기도 20160704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중부지방에 시작될 모양입니다. 눅눅한 빨래는 빨래방에 맡기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부터 기도리스트를 정해 놓고 하나하나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주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추가되었습니다.

For Me.

live together Jesus.

For My Family.

save our family's health and soul.

For My Friends

refresh Mr Roh Seok Hwan

For My Church.

Watch with me one hour.

Send a sephard for us.

장기 결석자 명단입니다. 수련회 전까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주세요.

이 아이들 모두 수련회 참석하고 회복되도록…

김유성 송은석 김주원 조민준 유하람 나상준 김유찬 이준혁

이주완 이재준 김형태 이해찬 김진영 김인하 김찬연 김수민

서예진 김소윤 이예은 심지원 송유진 송유나 송지연 송지민

이소정 이유진 마음하나

For My Country.

Don't forget sewolho.

punish our bad leader.

remember 0416, yellow ribon.

어머님들의 중보기도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제 학생들을 통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7월 25 ~ 27 2박 3일간입니다. 아이들이 꼭 참석하여서 좋은 영적 체험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공동체20160711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제가 아이들로부터 예수님을 배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초딩 티을 벗지 못한 녀석들이 시험 두번 보고 나더니 훌쩍 컸네요. 40년 넘게 자란 제 키보다.. 고작 14년 자란 녀석들의 키가 더 큽니다. (굴욕입니다.)

처음에는 저랑 어색해하던 녀석들이 이제는 선생님과 농담도 할 정도로 많이 담대(?)해 졌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지난 주에 이어 어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엡 14:11~~)

뭐 별거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체를 돌보라는 거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인지 아이들도 얼굴에 참 부담이 없어보입니다. 2학기에는 시험 자체가 없으니.. 더 신나겠죠?

자율학기제.. ㅎㅎㅎ.. 말만 들어도 신나네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섭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 날이 오겠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율신앙... 크게 어려움없고,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없는 자율신앙.. 지나고 보면 그때 잘 다져둘 껄? 하는 후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7월 25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집니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학원이 쉬는 방학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미 6월 초에 날짜를 잡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넋두리로 "학원이 갑이고.. 학교는 을.. 교회는 병 정도 일것이다"라는 농담이 현실이 되버리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기도는 늘 "갑"입니다.

"안전"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늘 가정에 주님의 울타리가 보호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성적2016071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학기 중보다 더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방학이 시작되면 먼저 한번은 거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성적표의 고민인데요. 저는 학창시절에는 성적표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로 인생의 성적표를 들고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한디?!!"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생성적표도 중요하겠죠?

자랑스런 성적표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칭찬받는 성적표?

어떤 성적이든 모두 중요합니다. 나름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이니까요. 아이들에게 지난 한 학기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 공과는 식사를 같이 하느라고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 어느 사람의 것을 받으셨을까요? 가슴을 치고 머리를 박고 회개하는 세리와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다른 사람과의 우위 의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종교지도자의 기도..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커다란 미션을 하나씩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새벽시장 나가 보기,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려보기 또는 방문해보기,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기, 친구들과 좀 더 놀아 보기,

커다란 미션인가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스펙이 아닐 뿐이죠.

그렇다 할 찌라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번 여름 방학 가족 미션들을 다들 한번씩 세워보세요.

뜨거운 여름. 늘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수련회20160730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수련회 기간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는 그동안 일상에 젖어있는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강한 영양제를 투여한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기초체력이 없다면 그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구절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변한다고 한다. 근데 그게 한번 듣고 바뀌면 폭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침에 아이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위압적 강요가 아닌 달콤한 간지럼과 같습니다.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에게 달콤한 간지럼을 태우십시요. 4주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대야 가운데 밤잠 설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는 휴가 때 미뤄논 업무때문에 벌써부터 맥이 빠지려구 합니다.

하지만수련회 때 강한 한방을 맞은 기운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출발하려구 합니다.

가정에 하반기 출발을 주님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간증20160803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는 영생이라는 주제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련회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간증(?) 소감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맞습니다. 2박 3일의 시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그 짧음 가운데도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역설적이고 요한복음 3:16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씀이고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더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은혜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말처럼 추상적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예가 있을까요? 뭐가 은혜이고 무엇이 임재일까요?

어느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잘 모르겠다는"는 고백을 들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이런 환상이 있을 수도 있죠. 성령이 임하면 머리에 종이 울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듯 하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순간 황홀한 경험을 하는..물론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는 조용합니다. 잔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쌓였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곡 "Miracle Generation" 도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기적의 세대로 자라기를 기도 드립니다. 저희 집에 며칠 째 계속 들려서 이제는 가사를 외울 정도네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7DSoSxdUO8>

# 이스라엘2016080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주는 예레미야(2:11~13)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가지 죄(SIN)로 인한 그들의 고통이죠. 때는 바벨론의 1차 침공 후 분열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안전할까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은 대세는 바벨론이니 바벨론에 의탁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지도자는 그래도 애굽의 힘을 빌어 바벨론을 쫓아내자고 하고..

구한말 또는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나요? 무기체계가 어쩌고.. 싸드가 어쩌고, 외교가 어찌하니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두가지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이방 민족의 우상을 의지한 두가지 죄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를 합니다.

좁게는 인생에서 넓게는 역사의 흐름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사명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침묵은 금이지만 기도와 하나님과의 소통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희소식이요, 아이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닌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 내십시요. 그 동안 더운 집밥 차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급식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방학이 끝나고 훌쩍 자라 있을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금메달20160816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8월 중순입니다.

여름방학도 끝나가고 가족들 여행도 마쳐가는지 오랜만에 아이들이 출석을 거의 다 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녀석이 계속 있지만 기도 중에 있으니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제는 "금메달이 다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중고등부에는 의외로 축구/야구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고3 학생도 있는데 이번 여름에 참가한 축구대회의 경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터프할 줄 알았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정말 순수한 학생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 우승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속한 팀이 예선전을 치르고 16강 8강 4강에 오르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믿음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모두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업/진로/꿈을 위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지상주의, 승자독식,"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개그맨의 유행어가 있듯이 모두 다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도일 때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같은 우승 트로피를 향해 기도를 할 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까요? 그냥 무승부할까요?

1%의 영광을 위해 99%는 희생하여야 할까요?

사도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에 빗대어 이야기 할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인생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 천국과 지옥20160825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선한 사람이 왜 지옥으로 가는가? [눅 16:19~31]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알려줍니다.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일부 부유층의 잘못된 형태와 자본주의의 약점으로 인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반대급부로 거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적자생존에서 멀어진 '루저'의 삶을 살고 있기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도 어찌 보면 그의 게으름과 타성, 나태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정말 거지같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보면 부자는 부를 나쁜 방법으로 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부자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문 앞을 허락했습니다.

누가 자기 집 앞에 걸인이 구걸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삐뚤어지게 보자면 부자의 마음에 "보아라. 난 거지에게도 내 문 앞을 허락한다"는 교만을 심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좀 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역할을 해야했고 요즘 사회안전망 시스템으로 보자면 나라는 거지를 구제했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오직 그의 잘못으로만 거지가 되었을까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거지 나사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개쳑 해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8개월전에 물어보았던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네가 나사로라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니?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니?"

8개월 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녀석들이 이제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반격을 당했습니다.

"물론이지..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로 인해 천국에 갈 것이다."

"거지 나사로(천국)와 부자(지옥)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 어느 누구도 건너 갈 수도 건너 올 수도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설령 그게 너의 가족이든 형제든..부자의 형제처럼 대신 알려줄 수도 없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원리를 이야기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스개 소리로 하는 "깁밥 천국, 분식 나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십자가를 손에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복잡한 곳에서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러나? "이 사람들 제 정신이야? 행색은 왜 저렇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욕 먹지..쯧쯧.."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업을 제껴 두고 전도를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또는 그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분명 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메세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 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 한가지로 선택받습니다.

그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선한 일을 많이 했고..존경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모르겠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 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때는 단 한가지로 선택받습니다.

평생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인 명제이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ALMIGHTY GOD을 이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위가 많이 물러갔습니다.

학생 각자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광일 드림-

# 뭐였더라? 2016090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여름에게 미처 작별인사도 못했는데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구.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에어컨을 찾아 다니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다녔는데 이제는 긴 소매 옷을 주섬주섬..

이번 주는 이사야 66장 1~4절 참된 예배로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벌써 5일이나 지나서 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갈 찌라도 교회를 나서는 순간 "뭐였더라?"

변화하는 날씨에 적응도 못하면서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9월입니다. 비록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찌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9월이 오면 예전 초등학교 친구가 보내 준 시가 생각납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 된 모습입니다.

9월이 오면 -안도현-

그대

구월이 오면

구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 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 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밀어주면

앞서 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 때 강 둑 위로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대

구월의 강가에서 생각하는지요

강물이 저희끼리만

속삭이며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손이 닿는 곳마다

골고루 숨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리하여 들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가는 것을

그대

사랑이란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구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몸을 부비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 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구월이 오면

구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 미래2016090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오락가락 날씨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학교가 많다보니 2학기에는 시험이 없는 학교가 많네요.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학생들은 참 바쁩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시험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또 해야하고.. 벌써부터 미래 직업체험을 위한 시간을 갖고 탐방을 준비하네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미래를 주셨을까요? (수 1:7~1:9)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지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요단강 너머에는 철기 문화가 발달 되어있는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광야생활을 하던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 글자로 줄여 보겠습니다.

"쫄지마!!"

아이들에게 어려운 성경을 설명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쫄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최광일 드림-

# 명절2016091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명절을 앞두고 목사님이 적절한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할까 말까 고민했던 제사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효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예법에 따르면 조상도 모시지 않는 뿌리도 모르는 종교라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천주교의 경우도 맨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제사를 금했고 신주를 폐하여서 조선인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이 나왔습니다. (신해박해)의 원인이 된 사건이죠.

하지만 그 후로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서(신유,기해,병오박해..) 조선의 상황이 보고되자 교황청은 1939년 토착 문화인 제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천주교가 처음부터 제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의 타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찌했을까요?

천주교보다 100년 가까이 늦게 들어온 기독교의 배신은 일제시대에 나타납니다. 신사참배의 허용을 90% 가 넘는 기독교단체들이 허용한 것입니다.

논리는 참 간단합니다. 천황=하나님

세상과의 타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25년간 폐교를 당한 학교였습니다. 전 이 점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사의 문제는 어찌 보면 영적 싸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의 대부분은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난"이 없는 아이들로 자라다 보니 "고민"이 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고민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가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빨간불 2016092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 벌써 가을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네요.

경남/부산/경주/울산이 고향이신 분들은 지난 명절기간에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많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오는 일에 대한 경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영혼의 빨간불 "싫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민 11:4~10)

빨간불.. 레드카드.. 경고장이죠.

인간관계에서도 권태감이 발생하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들간에도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생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작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은 그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싫증-->불평-->멸시-->저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단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싫증을 느끼게 되는 실제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 너가지로 압축됩니다.

1.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아서

2.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3.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4. 기타 상황

그 중 첫번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성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발목이 신경이 거슬리고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메티컬팀에게 말했더니 어려가지 검사와 MRI도 찍어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팀 닥터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한 달간 전담의를 박지성선수의 거주지에 보내어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하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던 중 박지성 선수가 팀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던 스포츠카에서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가속페달의 위치가 조금 낮아서 발목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결국 페달의 높이를 몇 인치 높이고 나니 발목의 이상이 사라지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의료팀은 한 선수를 위해서 전담의를 할당하고 조그만 이상증상을 찾기 위해 함께 살며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만큼 온전함을 추구하기에 조그마한 빨간불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일화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하나의 예이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산불은 처음부터 크게 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불씨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웁니다. 산불을 끄는 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소방헬기가 떠서 물 폭탄을 퍼붓거나, 하늘이 도와서 비가 내려서 꺼지거나 더 큰불을 내서 맞불을 붙여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싫증이 날 때는 맞불을 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불씨를 꺼뜨려야 합니다. 그러니 맞불을 낼만한 재료를 평소에 잘 준비해야하겠죠. 그리고 진화된 후 잔불을 청소할 수 있는 온전함이 그 재료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합니다. 간절기이고 명절 후유증에 컨디션 난조네요.

(일은 아내가 했는데 몸살은 왜 제가 나는지.. 몸살이라도 대신 격으라는 뜻인가요?)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빨간불 2 20160930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에 이어 영혼의 빨간불 "싫증"에 대해서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요 6:68)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육체의 배부름을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무리들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싫증과 실망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12제자들에도 묻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도 떠날꺼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런데 이 때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고 이미 가룟 유다를 가리키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싫증과 죄에 대한 부주의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죄와 투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에 손꼽히는 자입니다.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조그만 틈(싫증)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이번 주 한주도 저도 싫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죄에 대한 부주의함과 투쟁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사회적 부조리,불의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런 뉴스마저 너무 많이 들어서 싫증이 납니다. 무뎌집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난 군중처럼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눈감아버릴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싸울 것을 요구하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대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말하지 않아도 개인의 죄와 사회의 죄악입니다.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분기 마지막 날..

내일은 세월호사건의 9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빨간불3 20161006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3주에 걸치 영혼의 빨간불 : 싫증 마지막 주입니다.

중국의 손무는 전쟁의 계책과 대책에 대한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사람들은 그를 전쟁의 귀재로 여기고 "손자"라고 일컫고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손자병법입니다.

영적전쟁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편 42편 1절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슴의 목마름은 광야의 생활과 짝짓기 시절이 끝나가는 이스라엘의 건조한 날씨 속 타는 목마름이 있는 수컷 사슴의 모습입니다.

갈급함과 처절함입니다. 그 목을 축이지 않으면 광야에서 시체로 썩어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목마른 상태를 주님을 찾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자기 욕망의 추구,세속적 성공, 봉사, 자기 만족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혼의 싫증이 어떨 때 나올까요?

1.졸릴 때

2.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을 때(시험,가족행사 등)

3.그냥 귀찮니즘이 나올 때

여러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삶이 엉망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연합되지 않을 때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은 싫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노립니다. 영적 전쟁은 조그만 싫증에 무너집니다.

지난 주에 읽은 책 중에 "조고각하"라는 사자성어를 보았습니다.절에 가면 신발을 벗어둔 댓돌이 있는데 그 곳에 조고각하라는 말을 적어 두었다고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자기 삶 또한 뒤돌아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갑니다.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소중한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일년 농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최광일 드림-

# 불의2016101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기온이 뚝 하고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계시는 어머니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사회는 왜 이리 갈수록 불의가 판치는 것일까요? 불의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 합니다. (막 6:7 ~ 29)

내 주변에 정의롭지 못하거나 불의 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기록한 의사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도 십자가에 매달려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나는 관계없다"하고 손을 씻은 후 그 탓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립니다. 빌라도 역시 침묵입니다.

벌써 25년 전 이야기이지만 고등학교 시절 방학동안 자율(?)학습에 반대를 하고 학교를 가지 않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나름 그 때의 고민거리였죠. 그냥 땡땡이가 아니라 학교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선생님과 말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자율학습 안 할랍니다. 아이들을 선동했던 기억.. 물론 치기어린 마음도 있고 영웅심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제 자신이 생각나네요.

우리 아이들은 주변의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교 폭력, 아이들간의 폭행, 체벌, 언어 폭력.. 급식 비리..그냥 시간이 흐르고 묻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네요.

자기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뭐.. 그래서 어때? 어른들이 잘못 가르친거죠. 어쩌면 불의를 폭로한 자가 오히려 그 상부 조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 버린 구조.. 어느 누구도 불의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이 세례 요한처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행동이 항상 아름다운 해피 엔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침묵하지 말라.

이번 주 토요일에 원데이워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후 3:00~ 9:00)

아이들과 운동도 하고 바베큐파티도 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가을 하늘 좋은 날씨에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미래 한국2016102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이 참으로 많이 늦었습니다.지나가는 가을을 붙잡고 가을 타고 있느니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래교회 리포트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숫자가 30만에서 20만.. 어쩌면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층의 감소로 인한 것일까요?

(고전 1:10 ~13)고린도교회가 항구도시이다 보니 많은 재화와 물자가 오가는 부유한 곳이 되고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로 인한 사제들의 음란함과 여러 사회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고린도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열을 거듭할 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들고 결국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교회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떠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울고 싶을 때 빰 때려주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없는 자기 자신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자녀가 힘들고 사회정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한주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 최광일 드림-

# 공의의 하나님20161102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의로 표출된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규정한다. 심판하되 터럭만큼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이를 변호하고 죄인을 벌한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리라" (잠 17:15)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은 불의에 불같은 분노를 쏟는다. 사악한 이들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이들을 "악하다"고 몰아세우는 걸 끔찍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다.

- 카운터 컬쳐 / 복음과 문화가 충돌할 때... 21p-

안녕하세요? 사명의 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차가운 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공과 공부를 하는 중에..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당연히 하야라는 말도 나오고 요즘 아이들은 뭐든지 빠릅니다. 어른으로서 먼저 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감기에 걸렸네요. 콜록콜록.. 머리도 지끈지끈.. 장기 결석자가 많은 중고등부입니다. 아이들과 그가 속한 가족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 최광일 드림 -

# 핸드폰 20161111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어제 출근길에 출시되지 얼마 안된 고가의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주인 잃은 핸드폰이 버스 좌석 밑에 있었는데 우연히도 제가 앉은 자리네요.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애탔는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부재중 전화가 2통있고..하지만 지문이 등록된 것이라 열어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누군가 정말 혹시..관련된 사람이 보지 않을까 싶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30분 정도 뒤에 남편의 핸드폰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또 전화가 왔죠.

저는 강남이고 그분은 여의도에 계시고.. 다행히 타는 버스가 같아서인지.. 동네는 같은 영통권.. 핸드폰에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은 중간에 문자 하나 없고 이제는 찾을 수 있겠다는 마음인지..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너무 편한데 저는 왜 이리 기다려지고 좌불 안석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빨리 돌려줘야 하는 마음으로 퇴근도 서두르고.. 막상 돌려주고 뒤 마음에 갑자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빨리 구원해 주고 싶은데, 원 위치로 되돌리고 싶은데.. 인간은 너무 느긋하고 태평 세월이고. 고작 핸드폰 하나로 너무 논리의 비약인가요?

뭐…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희망적이지 않다 할 찌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 받고 힘들어하는 백성을 위한 설계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고 겨울입니다.

품 안에 따뜻한 마음을 담고 다니시길 기도합니다.

# 생명 20161118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일주일간 어떠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생명입니다.(성경=생명) 살아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지는 것이 육의 생명이라면 성경은 영의 생명입니다.

운동선수에게 기본기와 테크닉이라면 성경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체력과 같습니다. 5분도 못 뛰는 선수는 선수로서의 생명이 없죠.

마틴루터에게는 성경이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조지밀러 목사님에게는 성경이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고

성 어거스틴에게는 성경이 타락과 방황에서 인류사의 성인으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성경이 영국에서의 노예제도 폐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의 노예제도 역시 폐지되게 됩니다.물론 노예제도 폐지를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그럼에도 그 기본에는 성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시편 31:24]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바라는 소망이 곧 우리 힘이 됩니다!

그 분이 우리 힘이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촛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고래등 위 세월호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장용익 장로님 20161123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 특히 주일학교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또는 학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도 많기에 그런 것들을 함께 견뎌야 한다.

주일에 점심을 먹고 난 뒤 은퇴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냥 뒤통수 그냥 얻어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을까? 뭐..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일 년 동안 아니 유치원 포함 10년이 넘은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기본 교육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 같습니다. 너무 아이들만 비난 하는 것 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크리스쳔 부모들에게 받은 실망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일까?

오늘은 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유리 멘탈인 내 자신에게도 기운 빠지는 날입니다.

그래 더 뛰자.. 그래서 가르치자.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었노라고..

ps

그 은퇴장로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상급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늘로부터 "반드시" 온다라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윗 글은 아이들과 광화문집회에 같이 가자고 한 뒤

모든 학생으로부터 바람맞은 뒤 홀로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다녀온 뒤 쓴 글이었습니다. 여전히 시민들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지 일년이 되갑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이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직..여전히..계속..그러기에 이 귀중한 사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겁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엄마/아빠가 기도할테니 너희는 공부나 해."

혹시나 엄마/아빠가 이런 말 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해주렴~~

“아빠 그러면 안돼요!”

# 스트레스20161201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1:8~9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상관없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아니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학교생활일까요? 의외로 학교생활은 다른 것들에 비하면 무난한가 봅니다.

오히려 학원, 인간 관계(부모님,친구,교회 등)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원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잠자기, 게임하기, 음악 듣기, 조용히 명상하기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대답을 누가 했을까?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이거 모르면 아들과 교감이 없는 겁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문제는 여전하며, 게임하다 지면 또 열 받고, 명상을 하고 음악을 들어도 잠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근본적인 솔루션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입니다.

고난을 기뻐 하십시요. (저도 못합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고난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걱정과 염려를 물러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벌써 일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교회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광일 드림

# 복덩이들20161205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박창범 선생님 부부의 새로운 사역으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몽땅 다 받았습니다.박선생님 부부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송은석,조윤재,이주혁,이주영,한만윤,이종혁) 일 년전 5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다시 일년 후 6명의 아이를..물론 그 중 절반이 들락날락 아이들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을 주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어찌합니까? 감사해야 하나요? 5명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성인 예배시간에는

신자가 되라

제가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사명표어를 암송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알맞은 말이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거라 보다는

"어느 누구에게나 칭찬 받은 아이들이 되거라"

"모나지 않고 심성이 고운 아이들로 자라다오"

"삐둘지 않고 바른 아이들로.."

"먼저 사람이 되거라.."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만 자기 적성과 진로를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거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어라. -생떽쥐베리

아침 출근길에 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동경심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속한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는 영가훈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십자가20161213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교사 최광일입니다.

이번 주는 억지로 진 십자가(누 23:26)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임원 선거철이다 보니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려는 의도적 말씀선택인 것은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당사자는 나중에 초기 교회의 영적지도자로 일어서게 됩니다.(행13:1)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임원에 저희 반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_^)

아직 때가 아닌거겠지요?

다들 재주도 많고 다양한 아이들입니다. 신문과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 외유내강형 아이, 반대로 내유외강형, 천진난만형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혹시 여행의 뜻을 아시나요?

"여기서 행복할 것"이랍니다.

일상의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은 것도, 피하고 싶은 것도, 삶의 걱정, 불안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복으로 여길 때, 인생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집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고장인지 일주일 내내 말썽이었지만 거실 한쪽 구석에서 그 약한 신호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웃긴 모습이네요.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한 주였습니다.

다들 승리하시는 삶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분가와 접붙임2016121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고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교회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고등부가 중등부/고등부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는 계속해서 11시로 예배를 드립니다. 담당하는 성민기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앞으로 박정준 전도사님께서 부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성민기 목사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주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길이라는 주제로 (롬 11:23)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는게 서두였습니다.

정말!! 진짜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요즘 교회가 교회 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아서 오히려 은혜의 방해꾼이 된 듯합니다.

어쩌면 교회에 나가면 바보 취급 받고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고 역사도 모르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송상호 목사는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말라"는 책에서 오히려 현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하는 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일년이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뒤면 아이들이 중고등부 막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일년을 보낸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었다, 재미없다, 시간이 빠르다, 후배들이 기대된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

저는 어땠을까요? 수고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는데 아들을 10명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이 성경을 잊지 않고 가져오고 예배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일년 결산20161228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한해가 참 빨리 갔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이벤트를 하고 일년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 준 것과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했던 이야기와 올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족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잘 지켰던 아이도 있고 성경을 잘 읽었던 친구, 그리고 우정을 잘 지킨 아이들.. 학교 생활과 어려운 운동을 큰 부상없이 일년을 보낸 아이도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2017년 어떤 기도제목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 내년을 위해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은다 할찌라도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몫일 겁니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기도리스트 20170102

아이들의 기도제목

건강하기,

축구 할 때 다치지 않고 운동하기

우리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올해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나라 전체가 필리핀처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의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가족의 건강에 신경 써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기도제목2 20170110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어느 덧 새해가 밝은지 10일 지났습니다. 어제가 오늘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별로 변한 것은 없죠.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즘은 기도의 철인가 봅니다. 아이들과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이주혁

올 한해도 불행한 일 없이 무사히 보내는 것 - 김준호

다치지 않고 운동하기 - 조윤재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올해에는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나라전체가 필리핀처럼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 이종혁

저희 가족의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가족의 건강에 신경써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한만윤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것 - 배은준

제 기도제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기.

굳어가는 육체의 능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길..

장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금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잘 풀리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아이들의 모든 기도제목이 가지고 있는 공통 사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김현철이라는 신경정신과 의사는 사람이니까 불안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쓰고 버둥거릴 때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시편 52:22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벧전 5:6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요즘 중등부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앞으로 10주간 공부하게 됩니다.

1계명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과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시간의 기도제목을 추가합니다.

모든 교육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학교와 가정이 연결되어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특별새벽기도 20170117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특별새벽기도 기간 중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불 밖으로 꼼짝도 하기 싫은 날이네요.새해 기도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 금주/금연 운동하기

새해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이 헬스클럽과 영어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설날을 기점으로 2/3 정도로 숫자가 줄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1/2로 줄어들고 다시 원상태로 된다고 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목표지향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목표와 기도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기도처럼 항상 바뀌고 수정되어서 같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늘 해 왔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10주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모세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중 쳐다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누구의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놋뱀마저 우상으로 치부되고 히스기야 왕은

놋뱀과 그 시절의 많은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놋뱀을 목표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표만을 우선하게 되면 그 목표마저 우상이 되버리고 맙니다. 기도는 가치 지향적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업에 매달리고 성적에 희비가 엇갈리며 좋은 학교 생활을 목표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 인가에 대해 잘 알려주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2월 23~25일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같이 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바랍니다.

겨울이 한참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역사의 흐름도 한참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최광일 드림

# 천방지축20170124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무척이나 추운 날씨가 세밑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2 남학생들은 왜 이리 천방지축이고 천둥벌거숭이 같을까요? 제발 중2병이라도 들면 좀 조용하고 과묵해질텐데 여전히 초등학생 같습니다. (두개 반이던 녀석들을 합해 놓으니 더 하네요. ^\_^ )

옆 반 중2 여학생들은 왜 이리 성숙해 보이고 선생님 말도 잘 따르는지.. 그래도 이런 녀석들이 좋네요.

아직은 순수(?)하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니까요.

중등부에서는 10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번 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 6:11)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증언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겉으로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렵혔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정체성 마저 부정하게 됩니다.

(청문회의 누구처럼 위증하게 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핍박 받는 예술인들, 약자들이 생각나는 한 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 7:21)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학교 예배대신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 오가는 길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명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가족과 친지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예의와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나누시고요.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한달 뒤에는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3일~ 25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아이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광일 드림.

# 휴식과 안식20170209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설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지만 여전히 겨울이네요. 이번 주는 십계명 중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월/화/수/목/금/토/빨간날/일요일/주일

sunday, 태양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말도 있고 올림푸스 신화의 신들을 의미하는 요일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휴식이 필요할까요?

쉬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 여호와라고 하셨지만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엿새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면 주5일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우선주의에 반대되는 것일까요?

저는 주일을 피상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일이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고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날이 됩니다. 월요병에 시달리는 크리스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는 주일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월/화/수/목/금/금/금 하는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치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나)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그리고 천지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마음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찝찝함... 바로 이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따라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인지라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찝찝함이라는 감정이 어느새 생겼습니다. (아이들마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에게 주일을 잘 지키라고 말하려면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합니다. (T\_T)

가정에서부터 주일을 잘 지키는 영적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2주 뒤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겨울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23일 ~ 25일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

자녀들을 수련회에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벌써 개학을 하고 나니 어머님들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광일 드림

# 효(孝) 20170216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중등부에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룻기 1:6~18절 말씀을 가지고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간과 인간의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효에 관해서는 유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를 강조하고 군신간의 의를 중요하시는 하는 유교의 덕목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룻기를 통해서 본 5계명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 커다란 계획이 실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방인인 룻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로 완성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

남편이 죽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는 혈육으로는 이어지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남남입니다. 시월드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롯은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나아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옳은 방향임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입니다.

감정과 논리의 뒤범벅인 청소년시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옳고 그름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바랍니다.

회비는 35,000원입니다.

Early Bird로 신청한 아이들은 30,000원으로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강도사님/전도사님이 잘 준비했습니다.

최광일 드림

# 중학교 2학년 20170221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새학기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네요.작년 이맘때즘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청소년의 모습..옛날같았으면 중학교 간다고 까까머리.. 흔히 말하는 상고머리를 하고 어린이의 모습을 지우려고 할 때인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도 후배들이 있는 "나는 선배다"의 포스를 풍기고 다니는 모습이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중등부에서 한 몫들을 하고 있는 훌쩍 자란 모습에 대견합니다.

이번 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무서운 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갈래로 퍼져나가 사람 사는 세상의 법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 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간존엄에 대한 문제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살생,낙태,동성애,전쟁,사형의 문제로 확대될 때 인문학적 가치와 정의의 문제로 대두됩니다. 짧은 글에서 모든 문제를 거론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른들도 이런 문제로 많은 논쟁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방향을 틀면 그것은 곧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편협한 사고를 가질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세치 혀로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생명을 사랑하고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됨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사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가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최광일 드림.

# 은혜20170302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짧디 짧은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불과 이틀 차이지만 엄청 빨리 지나 간듯하네요. 수련회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는 회사 업무가 좀 많아서 더 시간이 빨리 간 듯 합니다.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연봉)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비교하는 순간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남의 집 자식은 어떻고, 우리 집 자식은 어쩌고.. 이런 순간 사라집니다. 그냥 자라는 과정에 걸맞는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이번 주는 십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2입니다.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하겠죠?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묘한 뉘앙스 때문만은 아닐겁니다)

뭐 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준에 맞게 그냥 도덕에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우와~~ 다들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답니다.

대답을 안 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안 봐도 뻔하지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멀게만 느껴지나요?

남자아이들의 이성관은 본능적으로 어머니와 가깝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이성관에 대해서도 대화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런 주제에 대해서 대화해도 좋을 나이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반대로 친구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선생님에게도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

# 역사의 순간20170310

안녕하세요? 사명의교회 중등부 교사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이네요. 지난 주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행복과 권리를 도둑질한 前 대통령이 드디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느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현재의 세대 다음의 세대, 모든 세대가 모두 다 어우려저 가는 과정을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최광일 드림